

회의명: 입법청원안 준비 회의 3작

회의 일자: 2024년 2월 27일

기록사(서기)명: 김정민

참석자: 총 16명: 김정민 의원, 김서영 의원, 김지현 의원, 박규민 의원, 송민솔 의원, 이지우 의원, 장수민 의원, 정유빈 의원, 홍주원 의원, 김솔보라 의원, 정서영 의원, 박지후 의원, 배수현 의원, 이재원 의원, 최원상 의원, 황윤재 의원

주요 안건: 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청원안에 대한 상세 설명 및 토론

회의 내용 요약:

- 대표 입법청문안 세부 내용 피드백 및 고칠점 등 논의
  - 인종 차별 완화 방안
  - 외국인 노동자의 인식 개선과 일자리 할당제
  - 공공시설에서의 영어 상설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 분야별 차별 해소 방안
  - 다음 할 일

다음에 할 일:

- 입법 청문안 세부 내용 논의
- 입법 청원안 발표 PPT 제작
- 인종 차별 완화 방안 논의
- 공공시설에 영어 상설화 계획 수립
-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1부 : 김지현의원님 이법청원안 질문

- I.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유빈 의원)
  - A. 교육 기관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봄
  - B.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해서 생각해 봄
    1.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2.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식으로 기관을 확실히 하고 범위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임
- II. 다문화 가족의 이해 증진과 교육
  - A.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 법률 조항들이기 때문에 고치고자 하는 제18조와도 이해 증진과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함 (정유빈 의원)
  - B.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를 많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러한 기관과 명칭을 조금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함 (김은설 의원)

- C. 18조에 관한 안에서 보안을 고치고 수감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새로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의견일 것 같음 (황윤재, 정서영 의원)
- III. 인종 차별 완화 (홍주원 의원)
- A. 인종 차별을 완화하는 것 또한 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종 차별을 완화하는 것도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음
  - B. 인종 차별에 관련해서 한다면 아예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IV.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주체 (홍주원, 송민솔, 정유빈 의원)
- A.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를 해야 된다고 함
  - B. 교육과 관련해서 주체에 대한 용어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C. 인종차별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다른 조항으로 따로 분류해서 차별을 법적으로 막고 있음 (정유빈 의원)
  - D. 제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다른 조항으로 분류해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음
- V.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방법 (박지후 의원)
- A.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라면 교육도 필수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음
  - B. 우리나라가 다인종 국가로 됐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낮은 편임
  - C.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부분에서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 1.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
    - 2. 외국인 근로자가 인식이 높지 않은 이유는 저하된 분야의 육체 노동자로서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임
    - 3. 고급 인력의 분야에 확보를 함으로써 인식 개선이 확실히 변할 것 같음
    - 4. 요금과 관련해서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VI. 청소년 교육의원과 겹치는 현상 (김유진 의원)
- A. 교육 부분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청소년 교육의원과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데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새로운 조항
  - B. 교육이 아닌 분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C. 문화 분야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VII. 외국인의 한국 적응 (김서영 의원)
- A. 차별이나 제한 외국인이 한국에 적응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안건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민과 대한 외국인 사이의 상호 교류를 위한 안건인지 여쭙보고 싶음
  - B. 이에 따라서 교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집중할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될지가 정해질 것 같음
- VIII.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 (김솔보라 의원, 박지후 의원, 정서영 의원)
- A. 공공시설에 영어를 좀 더 많이 상설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림
  - B.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고급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산업들 있잖아요. it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 C.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고급 기술들이 다른 외국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함
- IX. 제한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박규민 의원, 황윤재 의원, 박지후 의원, 정유빈 의원)
- A. 제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에게도 부족한 일자리를 가져간다는 이유 때문임
  - B.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높이려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당제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베네핏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함
  - C. 제한 외국인의 차별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극대화시킨다는 위험성이 생각이 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1차 산업에 주로 많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나 상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 D. 2~3차 4차 산업에 종사한다고 그런 차별들이나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직업에 대해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됨